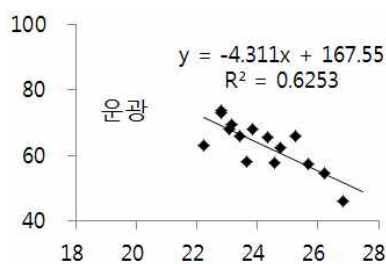


원, 전북 진안 및 경남 함양 등의 지역에서 식미치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배지역간 식미치의 범위는 46.2~73.9로 중생 및 중만생 품종들에 비해 식미치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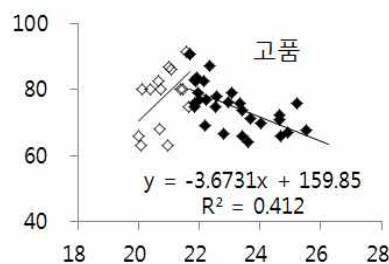
중생 및 중만생 품종들의 식미치는 대체적으로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이 22℃ 내외였을 때 식미치가 가장 높았는데,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이 22℃ 이하일 경우 온도가 낮을수록 저온에 의한 등숙불량으로 식미치가 감소하였으며 22℃ 이상일 경우 온도가 높을수록 고온등숙에 의한 영향으로 식미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.

중생종인 고품은 지역에 따른 식미치의 범위는 63.0~91.3, 22℃이상인 온도에서는 온도가 1℃ 상승함에 따라 식미치는 약 3.7정도 감소하였으며 하리아미는 식미치의 범위는 64.0~90.3, 22℃이상인 온도에서는 온도가 1℃ 상승함에 따라 식미치는 약 5.2정도 감소하였고, 대보는 식미치의 범위는 64.5~90.0, 22℃이상인 온도에서는 온도가 1℃ 상승함에 따라 식미치는 약 2.1정도 감소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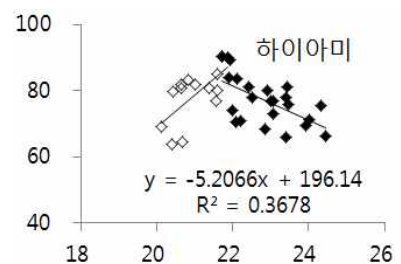
중만생종의 품종별 재배지역에 따른 식미치 범위와 22℃이상인 온도에서는 온도 1℃ 상승에 따른 식미치 감소정도를 보면, 삼광은 식미치 범위 67.6~90.0과 식미치 감소정도 2.7, 호품은 식미치 범위 59.2~86.7과 식미치 감소정도 2.2, 칠보는 식미치 범위 60.7~88.0과 식미치 감소정도 3.0, 진수미는 식미치 범위 65.7~90.3과 식미치 감소정도 2.5, 영호진미는 식미치 범위 67.3~93.3과 식미치 감소정도 1.6, 미품은 식미치 범위 63.3~94.7과 식미치 감소정도 3.3, 수광은 식미치 범위 67.3~91.0과 식미치 감소정도 2.5로 나타나 중생종과 중만생종 품종 중에 재배가 잘 되었을 경우 가장 식미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종은 미품과 영호진미였고 나머지 품종들은 90내외로 비슷하였다. 그러나 고온등숙 조건에 재배되었을 경우 식미치 저하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종은 하리아미였고, 그 다음이 고품 > 미품 < 칠보 순이었으며 그 외의 품종들은 그 다음 순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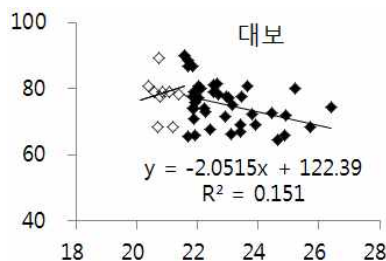
<운광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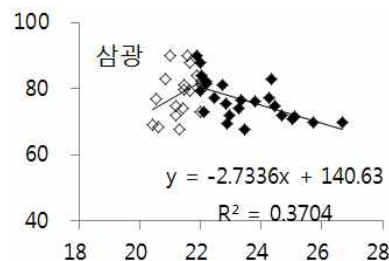
<고품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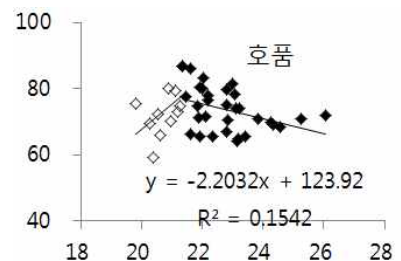
<하리아미>



<대보>



<삼광>



<호품>